

군지자체 귀농귀촌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요인의 중요도 인식 수준

오상영
유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 study of Recognition level of Factor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turn to Farm and Rural' of the local Government' Policies

Sang-young Oh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U1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책의 수립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5가지가 선정되었다. 주요 요인은 교육, 자립 환경, 생활적응, 자금지원, 컨설팅 등이다. 또한 이들의 중요성은 자립 환경이 28%의 비중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이었다. 다음으로 컨설팅(17%), 교육(15%) 등의 순으로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요인은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어 상세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요도 분석은 AHP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귀농귀촌, 쌍대비교,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 지방경제, 인구감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ies of return to farm & rural of the local government 's local communities. Through this, we inte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policies of the local village. The local economy is difficult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as a way to increase the population. It is also important as a way to revitalize agricul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ain factors are education, self-sufficiency, adaptation, funding, and consulting.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se was highest in the self-supporting environment (28%). Followed by adaptation (21%) and funding (20%). Followed by consulting (17%) and education (15%). We can conclude that the factors that show a somewhat lower proportion are less important, but we can also conclude that the importance of the factors is high due to the high maturity of the factors. The importance analysis used AHP techniqu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government policy.

Key Words : Return to Farm & Rural, AHP, Local Government's Policies, Local economy, A decrease in popul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절대적인 인구감소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

가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도시인의 귀농귀촌으로 줄어드는 지방의 인구를 다소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귀농귀촌인의 부적으로 역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의 인

*Corresponding Author : Sang-young Oh(culture@yd.ac.kr)

Received October 12,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Revised December 7,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9

구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통계청(2018)[20]에 의하면 귀농인구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고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12]은 귀농·귀촌 현상 분석을 위해 1천 명의 귀농·귀촌인 패널을 구축하여 이들의 정착실태를 추적 분석한 결과, 귀농귀촌인이 농촌 정착과정상에 겪는 어려움으로 자금 문제, 영농기술 문제, 농지구입 문제, 생활여건의 불편,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이었으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되는 농촌인구의 초 고령화, 인구 감소, 생활권 확대 시대의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공동체 활동과 경제공동체 활동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구 5만 명 수준의 기초지자체 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착과정 실태를 조사하고 그동안의 추진 정책을 분석하여 군 단위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전국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수요 요인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서는 귀농귀촌의 정착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가 귀농귀촌을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지원금만 받고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어 모럴해저드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을 연구한 선행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최근에 요구되는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정책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분석으로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통해 지자체에 맞는 특화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 연구

2.1 귀농귀촌인의 특성

2012년 농정당국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귀농자 4,080세대 중 221가구(약 5.4%)가 귀농에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9]. 또한 귀농·귀촌 정착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도시로의 재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대략 9.6%가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 귀농·귀촌 교육이수자 정착실태 조사를 재분석해보면, 교육이수

이후 귀농·귀촌 실행자 중에 5%가 정착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12]. 특히 농촌 주민과의 관계가 역 귀농·귀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과의 왕래가 많거나 원 주민과의 갈등 경험이 낮을수록 역 귀농·귀촌 의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5].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관계,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원활한 편입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정착에 지역 단위의 대응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에 있어 개인 단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단위의 정착 시스템 구축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6]. 지역주민들의 귀농귀촌인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귀농귀촌은 지역갈등의 주범이 될 수도 있으며 상당수 귀농·귀촌인은 주민과의 관계에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과반수가 갈등 경험이 있으며 갈등의 사유로는 '귀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33.9%, '재산권 침해' 24.3%, '농촌에 대한 귀농인들의 이해 부족' 15.4%, '마을 모임 불참' 12.0% 순으로 나타났다[16]. 그렇지만 귀농귀촌인은 지역 활성화의 근원으로 고령화, 과소화 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14].

2.2 귀농귀촌 정책의 주요성공요인

박문호 외(2012), 채상현(2013), 손상탁(2012)은 귀농귀촌 성공을 위한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귀농귀촌인의 농업 소득원 확보, 귀농귀촌을 위한 초기 자금 등으로 제시하였다[10,11,18]. 마상진 외(2016)는 원주민과의 인간관계는 농촌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에 대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2,4,5,13,15,17]. 채상현(2013), 박시현 외(2014)은 가족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귀농귀촌인에게 가족의 중요성은 귀농귀촌 교육 이수 후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57.2%)가 가족 전체 귀농으로 1인 귀농보다 월등히 많다고 분석하였다[4,8,19].

이철우 외(2015)는 특정 지역인 경상북도의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에서 주요성공요인으로 1)귀농·귀촌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개선(귀농·귀촌 지원 조직의 독립성), 2)지역특성 및 귀농·귀촌인(세대)의 속성에 기초한 정책 필요, 3)귀농·귀촌인이 농촌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 4)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귀농자 대상 특화된 정책 등을 주장하였다[3].

2.3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정책

전국 지자체별 귀농귀촌지원정책(귀농귀촌종합센터 자료, 2018. 08월 현재 각 지자체별 귀농귀촌정책 연구자가 재분석)은 총 9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2018년 총 842개 귀농귀촌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지원항목별로 구분하면 교육 분야 174개, 세제지원 9개, 적응환경 112개, 정착지원금 487개, 컨설팅 분야 69개, 총 851개의 지원정책이 있다. 귀농귀촌사회복지정책도 총 9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서 2018년 총 406개 귀농귀촌사회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지원항목별로 구분하면 가정복지 분야 12개, 교육 147개, 농가도우미 90개, 농업인보험 27개, 바우처 지원 34개, 사회보험 63개, 주민복지 37개, 총 410개의 사회복지정책이 있다.

2.4 중요도 분석

의사결정방법론의 하나인 AHP기법은 공학 외에도 경영학까지 응용범위가 넓다[7].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T. L. Saaty가 개발한 것으로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론이다[21].

3. 연구결과

3.1 조사 설계 및 자료 수집

귀농귀촌 성공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조사 방식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의 개선, 개발 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식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조사(AHP) 방식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귀농귀촌인 대상 1부, 원주민 대상 1부를 각각 설계하였다. 귀농귀촌인 대상 조사 설문의 구성 내용은 영동군 귀농귀촌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귀농귀촌 이전과 이후의 차이, 귀농귀촌의 미래전망, 역귀농 가능성,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응답자 개인의 특성 등이다. 또한 원주민 대상 조사 설문의 구성 내용은 귀농귀촌인의 활동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 귀농귀촌의 미래전망, 응답자 개인의 특성 등이다.

설문조사는 귀농귀촌인 200명, 원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귀농귀촌인 56명, 원주민 25명은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귀농귀촌인 93부, 원주민 2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지 회수 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였다. 또한 전문가 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조사는 귀농귀촌 정책담당자 30명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하였으며 30부 중에서 일관성이 부족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기초자료 분석

응답자 중 귀농귀촌 연차가 3년 미만(35명, 39.3%), 6년 미만(34명, 38.2%), 9년 미만(15명, 16.9%), 9년 이상(5명, 5.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현황은 60대(44명, 48.4%), 50대(27명, 29.7%), 40대(15명, 16.5%), 30대(4명, 4.4%), 20대(1명, 1.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5%(69명)가 귀농귀촌 6년차 미만이며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48.4%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67.1%가 소득부족으로 분석되어 귀농귀촌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의 영농 경험은 52.8%가 전혀 없으며, 경험자는 농어촌 출신을 포함하여 43.8%로 영농 교육의 필요성 높았다.

귀농귀촌 환경 중요인식 대비 만족도 분석에서는 농업경영을 위한 정착지원금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득보장 항목이 중요성 대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Gap)을 보였다.

Table 1. Analyzing Satisfaction with Agricultural Environment

Classification	Importance			Satisfaction			Gap
	N	Ma	SD	N	Ma	SD	
Settlements a support policy (Training, Consulting)	86	4.09	1.17	91	2.92	1.09	-1.17
Agricultural Management Support Policy (Technical, Marketing)	92	4.34	.99	90	2.94	1.03	-1.39
Settlement support fund	92	4.14	1.18	89	2.61	1.04	-1.53 ^{†)}
Welfare Service (Medical, Transportation, Education)	92	4.05	.99	90	2.79	.97	-1.27
Adaptation environment	92	4.29	.94	89	3.00	1.01	-1.29
income security	92	4.32	1.08	88	2.88	1.01	-1.44 ^{†)}
The Adaptation of Rural Life Environment	90	3.98	1.04	90	3.16	.95	-0.82

†) Analysis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items (greater than Gap).

응답자는 2019년에 예상되는 가장 큰 고민은 “수입 감소(36.4%)”가 가장 많아 귀농인의 소득 보장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역 귀농을 시도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부족”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의 연차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자체의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2. Agricultural annual and age group : local government support policy satisfaction

Classification		A	B	C
Annual of return to farm(A)	Pear. r	1	-0.051	0
	p-value		0.645	0.998
Age range (B)	Pear. r	-0.051	1	.518**
	p-value	0.645		0
Satisfaction with support policies (C)	Pear. r	0	.518**	1
	p-value	0.998	0	

** r < 0.01 statistically significant.

3.3 요인의 중요도 인식수준 분석

많은 연구자들은 귀농귀촌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귀농귀촌 정책 요인의 중요도 분석을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1차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변수 간 변별력이 없어, Varimax에 의한 2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5개 그룹의 요인 군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한 고유 값과 추출한 요인들에 의해 각 변수의 설명력(공통성, Commuality)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5개의 고유 값(Eigenvalue)은 모두 1.0이상의 값으로 설명력이 통계적으로 충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요인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선정될 수 있다. 요인1은 교육(사전 교육, 농업기술)이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 철저한 교육이 중요하다. 요인2는 자립 환경(일자리 제공)이다. 귀농을 하였지만 당장 농업을 통해 소득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착을 위한 수년 동안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요인3은 생활적응(주민화합, 고립감 해소)이다. 원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로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요인4는 자금지원(정착금, 세제혜택)이다. 귀농귀촌을 하면

대지, 주택 등의 구입이 먼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정착금 지원을 한다. 요인5는 컨설팅(상담, 판로, 농업경영)이다. 농업 생산물의 판로, 경영을 위한 섬세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Factors	Variables	Ingredient(Factors)					comm unity
		Fac.1	Fac.2	Fac.3	Fac.4	Fac.5	
Edu cation	return to farm(4) [†]	0.847	0.254	0.036	0.032	0.030	0.785
	agricultural management(7)	0.797	0.402	0.105	0.086	0.088	0.816
	technology(8)	0.781	-0.019	0.117	0.239	0.222	0.681
	policy use(11)	0.759	0.274	-0.071	0.094	0.088	0.665
	information use(12)	0.713	0.319	0.030	0.115	0.101	0.625
	univ. of farm(14)	0.684	0.282	-0.088	0.168	0.163	0.584
	wine academy(22)	0.678	0.227	0.135	0.245	0.229	0.590
	garden tech.(2)	0.610	0.262	0.092	0.332	0.310	0.559
self-reli ant environ ment	Job creation(1)	0.189	0.895	0.084	0.011	0.022	0.845
	mentoring(10)	0.264	0.783	-0.152	0.094	-0.011	0.715
	income support(13)	0.240	0.741	0.071	0.054	0.033	0.615
	joint income(16)	0.327	0.641	0.173	0.133	0.120	0.566
	income replacement fund(17)	0.400	0.593	-0.044	0.429	0.033	0.698
living adaptati on	Community introduction(3)	0.081	0.176	0.848	0.031	-0.011	0.757
	group entry(5)	-0.203	-0.032	0.793	0.038	0.033	0.672
	life counseling(6)	-0.302	-0.180	0.791	0.118	0.001	0.763
	guide to tourism(9)	0.312	-0.085	0.680	-0.002	-0.001	0.567
	agricultural evacuation center(20)	0.028	0.427	0.666	-0.035	-0.033	0.628
Funding	house support(21)	0.292	0.142	0.604	-0.019	-0.010	0.470
	low-cost farmland purchase loan(15)	0.030	0.194	-0.119	0.803	0.110	0.697
	agricultural facility funds(23)	0.305	0.192	0.110	0.760	0.003	0.720
	Housing tax(24)	0.259	0.038	0.417	0.583	0.331	0.582
	home repairs(25)	0.318	-0.116	-0.087	0.403	0.121	0.285
Consulti ng	agricult. admin(26)	0.274	0.071	0.094	0.088	0.774	0.766
	market. support(27)	0.219	0.030	0.125	0.201	0.760	0.698
	web advertising(18)	0.222	-0.088	0.148	0.123	0.456	0.657
	help center(14)	0.217	-0.115	0.145	-0.129	0.450	0.572
Eigenvalue		5.58	3.72	3.65	2.32	1.99	

[†]Survey number for analysis.

5개 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AHP기법에 의한 분석을 위해 3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20명이 응답을 하였다. 이 중에서 일관성이 없는 응답자 1명을 제외한 19명의 AHP분석 결과를 반영하였다.

Table 4. Results of AHP analysis

	1	2	3	4	5	6	7
Education	0.07	0.14	0.11	0.14	0.23	0.27	0.11
self-reliant environment	0.45	0.35	0.34	0.37	0.26	0.15	0.32
living adaptation	0.19	0.22	0.25	0.17	0.21	0.12	0.27
Funding	0.08	0.10	0.11	0.14	0.15	0.32	0.15
Consulting	0.21	0.18	0.19	0.18	0.14	0.14	0.1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onsistency Ratio	0.03	0.12	0.11	0.07	0.29	0.04	0.10

	8	9	10	11	12	13	14
Education	0.14	0.14	0.12	0.29	0.11	0.10	0.14
self-reliant environment	0.28	0.24	0.25	0.13	0.30	0.31	0.24
living adaptation	0.22	0.20	0.19	0.11	0.24	0.26	0.24
Funding	0.18	0.26	0.24	0.33	0.17	0.18	0.21
Consulting	0.19	0.16	0.19	0.13	0.18	0.15	0.16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onsistency Ratio	0.09	0.14	0.19	0.03	0.14	0.17	0.10

	15	16	17	18	19	20	Tot.	Importance
Education	0.25	0.13	0.14	0.13	0.18	0.12	2.82	0.15
self-reliant environment	0.19	0.30	0.28	0.25	0.21	0.29	5.24	0.28
living adaptation	0.11	0.20	0.26	0.24	0.26	0.24	4.00	0.21
Funding	0.31	0.23	0.15	0.23	0.20	0.16	3.75	0.20
Consulting	0.14	0.15	0.18	0.16	0.15	0.19	3.19	0.17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9.00	1.00
Consistency Ratio	0.02	0.17	0.13	0.16	0.19	0.14		

* No. 5 respondents excluded due to lack of consistency ratio.

AHP 분석 결과 귀농·귀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요인의 중요도는 자립환경(28%), 생활적응(21%), 자금지원(20%), 컨설팅(17%), 교육(15%)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귀농·귀촌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자립환경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4. 결론

귀농·귀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이들 변수를 축약해보면 1)교육(사건교육, 농업기술), 2)자립 환경(일자리 제공), 3)생활적응(주민화합, 고립감 해소), 4)자금지원(정착금, 세계혜택), 5)컨설

팅(상담, 판로, 농업경영) 등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5가지 요인의 중요도, 수요도, 현재 만족도 등의 수준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황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5가지 요인의 중요도를 보면 자립 환경(2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5만 명 수준의 기초지자체 수준에 타당한 분석 결과이지만 규모가 다소 큰 지자체 정책 수립에도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 결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요인은 생활적응(21%)으로 자금지원(20%) 비중과 유사하였다. 넷째, 다섯째 요인인 컨설팅(17%), 교육(15%)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요인의 성숙도가 높아 중요성이 낮아진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가 매우 많으므로 모든 군 단위의 귀농·귀촌 정책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은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상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군 단위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C. G. Kim, H. J. Lee, G. H. Kim & M. S. Park. (2011).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of Reverse Return to Farm & Rur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 C. G. Kim, H. J. Lee, G. H. Kim & M. S. Park. (2011). *A Study on Successful Settlement of Return to Farm & Rural People and Development Plan of Rural Societ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3] C. W. Lee & S. H. Park. (2015).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Return Farm & Rural Policy in Gyeongsangbuk-do,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0(6).
- [4] Jeonbuk Province Return to Farm & Rural Support Center. (2016). *Beginning your rosy life with agriculture succeeds as much as you prepare*, <http://www.jbreturn.com/>
- [5] J. S. Kim, J. I. Seong & S. J. Ma. (2013).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Tasks of Return to Farm & Rural Community*, KREI of Focus on agricultural affairs 13.
- [6] J. S. Kim, J. I. Seong, S. J. Ma & J. E. Yim. (2012). *Return to Farm & Rural Policy and Education Systemization Plan*,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7] K. T. Cho, Y. G. Cho & H. S. Kang. (2003). *Hierarchical analytical decision making*, Dong Hyun Publishing, 170-171.
- [8] M. K. Jang, J. W. Lee, J. U. Huh, H. M. Kim, S. H. Che, G. H. Kim & G. S. Song. (2013). *A study on the status of settlement of Return to Farm & Rural population and policy develop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9] M. K. Jang, J. W. Lee, J. U. Huh, H. M. Kim, S. H. Che, G. H. Kim & G. S. Song. (2014).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of Reverse Return to Farm & Rur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0] M. H. Park, N. W. Oh & J. E. Yim. (2012). *A Study on the Promotion of Return to Farm & Rural for Activation of Rural A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1] S. H. Che. (2013). [*Influential Factors of Successful Rural Settlement*] *Analysis of Return to Farm Status and Success Factors*, Korea Agricultural and Industrial Education Conference Presentations, 43-60.
- [12] S. H. Che. (2014). *Population Settlement and Policy Development of Return to Farm & Rural*,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13] S. J. Ma. (2016). *What makes it difficult*, Agricultural Outlook.
- [14] S. J. Ma. (2016). *Study on Actual Situation of Settlement by Type and Expansion of Community Roles of Return to Farm & Rur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5] S. J. Ma, G. C. Nam & Y. J. Choi. (2016).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of Reverse Return to Farm & Rural, *Rural society*, 26(1).
- [16] S. J. Ma, D. S. Park, S. H. Park, Y. J. Choi, Y. U. Choi & G. C. Nam. (2014). *Long-term Follow-up Survey 1st year of Return to Farm & Rural*,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7] S. J. Ma & G. H. Jeong. (2008). *A Study on the Solution of Entry Disability in Employment of New Agricultu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18] S. R. Son. (2016).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of Return to Farm & Rural in Gyeongnam Area and Policy Measures*, Ky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19] S. H. Park & Y. U. Choi. (2014). *Return to Farm & Rural factors and their effects on rural societies and econom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0] Statistical Office. (2018). *Return to Farm & Fishing - Return to Rural Statistics By 2017*.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21] T. L. Saaty.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 Hill.

오 상 영(Oh, Sang Young)

[정회원]



- 2002년 3월 ~ 2010년 2월 : 청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과평가, 경제정책
- E-Mail : culture@yd.ac.kr